4. 오바댜 – “여호와께서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오바댜 1:15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는. . .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생소한 예언서 중에 하나가 ‘오바댜’서 일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바야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모두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오바댜가 말하는 심판이 독특합니다.
나훔과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동일한데, 그 대상이 ‘에돔’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멸망했고, 남 유다는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물건들도 가져갔도,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분명히 원수는 바벨론인데,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혼내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바벨론을 도왔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족속들입니다.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형제의 나라요 족속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병자호란’을 기억하시나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가 몽골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족은 포로와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때,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은 도망쳐온 포로들을 우리 동족이 다시 잡아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참으로 깊은 상처를 에돔에게서 받았고,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야’로 끝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룰 들어 ‘스바냐’가 그랬던 것처럼 ‘오바댜’도 하나님과 관계있는 것이죠.
‘오바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니, ‘오바댜’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의 인물이 열한 명 더 등장하는 데,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이 행한 일을 정산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일 것이고, 에돔 역시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앗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바르지 못한 것을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동규의 (하나님을 품은 예언자)에 보면,
“종은 자기 집에서 항상 같이 사는 존재이며 때가 되면 분명히 주인과 종이 정산해야 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오면 분명히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오바댜는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토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오바댜에서 기록하는 에돔의 죄는 첫째, ‘교만’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끄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돔은 세일산이라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약 3km에 걸쳐 좁은 암반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가막힌 요새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안전했고 풍요로웠으며, 풍부한 자원과 무역으로 누릴 수 있는 부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죄는 그들의 형제인 야곱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죠. 본래 유다와 에돔은 연맹을 맺은 나라였는데, 유다가 위기에 처하자 에돔은 수수방관했습니다. 아니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며 바벨론이 휩쓸고 간 지역에 들어와 남아있는 성전의 유물을 빼앗아 도망갔으며,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왜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을까요? 어쩌면 에돔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노와 시기가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장자였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강탈당한 것에 대한 상처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이유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에돔 족속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 때는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나라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포악하게 행했습니다.
형제라고 믿었던 나라에게 당하는 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저 에돔 족속을 심판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심판에서 피할 자도, 피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14절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으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에돔을 일소하고 그 땅을 다른 나라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다. 에서의 후예 에돔인들이 에서의 쌍둥이 동생의 후예인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 일에 도움을 주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침략자들-아마 바벨론일 것이다-이 유다를 정복한 후 에돔인들은 파괴된 유다 성음들을 다니면서 비웃고 약탈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유다 피난민들을 사로잡아 침략자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돔이 유다에 임한 재앙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으로 이득을 볼 권리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렇게 했다.

언젠가 유다가 자기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때가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18)

게다가 바벨론의 포악함을 피해 에돔으로 도망한 이들을 잡아 바벨론에게 넘겨준

씨앗이 열매가 된다!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가 심은 씨가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심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들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종종 '씨앗'과 '열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과 평화, 사랑과 증오, 행복과 불행 같은 것들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해 열매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시작이 있습니다.
가끔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 말입니다.
지난 해 무척 더웠던 주일 '가을이 옵니다'라고 예언을 하고 보니, 그 말이 참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운 여름을 지나며 어떻게 잘 지나느냐는 것이죠.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기쁨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에 대한 심판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과정을 통해 맛보게 될 미래의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를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인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영역을 떠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원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깨달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긴장'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으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는 순간 언제든지 은혜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하형록 회장의 [wisdom 21]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아들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가 바랐고, 아들들을 차례로 보내 매우 멀리 떨어진 배나무를 보고 오게 했습니다.
첫째는 겨울에, 둘째는 봄에,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각각 여름과 겨울에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와 아버지에게 보고 합니다.
첫째 아들: 나무는 추하고 휘어져 뒤틀려 있었어요.
둘째 아들: 아니요, 나무에는 꽃이 가득 피었고, 나무는 향기로웠으며 매우 아름다웠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우아 했어요.
셋째 아들: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초록색의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넷째 아들: 아닌데요. 제가 본 나무는 원숙하여 열매를 맺었고, 생명과 충만함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나무를 한 계절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가 행한 대로. . .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이 여인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데려올 남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만났던 남자들 중 누구도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겪는 일이죠.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한 것인 '생수'인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물이 불어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넘치지만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물. '터진 웅덩이'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헛된 우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죄의 속성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터진 웅덩이의 물을 마시고 실망한 인간이 찾는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J. D. 그리어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중에서)

우상을 탓한다:
잘못된 우상을 선택했다고 판단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우상을 선택하리라 결심한다.
'음, 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것은 사람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야. 너무 어려서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인지를 판단할 안목이 없었던 거야.
어딘가에 내 진짜 짝이 있어. 단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 나를 쉴 새 없이 행복하게 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말겠어,' 그래서 곧바로 새로운 우상을 찾아 나선다. 같은 우물에서 계속 또 다른 물을 길어 올린다.

자신을 탓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지 않은 탓이야. 나는 항상 일을 그르쳐.'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새로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걸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하지만 작심삼일일 뿐이다. 또다시 게으른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점점 절망의 늪에 빠져든다.

세상을 탓한다:
행복을 찾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냉소주의로 변해, 어딘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을 비웃는다. 삶의 의욕을 잃고 사람들에게 냉담해진다. 술이나 마약, 물질주의에 의존한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홀로 취미에 몰두한다. 허무주의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분노로 타오르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만 보면 공격을 퍼붓는다.

자신이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충분한 신이 못 된다. 우리에게서 빠진 것이 '하나님'이라면 배우자나 연봉, 마약 주사기에서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일 것이다."